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신 대통령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먼 길을 오셨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알제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마그레브의 중심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난 5년 동안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에서 나는 알제리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마그레브와 동북아를 잇는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두 나라는 수교한 지 10여년에 불과한 새로운 친구입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오랜 기간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온 국민의 힘으로 식민지배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독립을 이룩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특히 각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국민화합, 경제자유화, 정치 개혁, 국가조직 개혁 등은 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두 나라가 앞으로 협력해 나갈 분야는 아주 많습니다. 이미 알제리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네번째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차원의 인적교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알제리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큼니다. 알제리의 석유탐사와 신도시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하의 이번 방문이 양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

200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대립과 갈등, 폭력과 테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더더욱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나는 각하와 함께 테러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마그레브, 한반도, 중동지역에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두 스물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의 마지막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쁩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건강과 알제리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호협력을 위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